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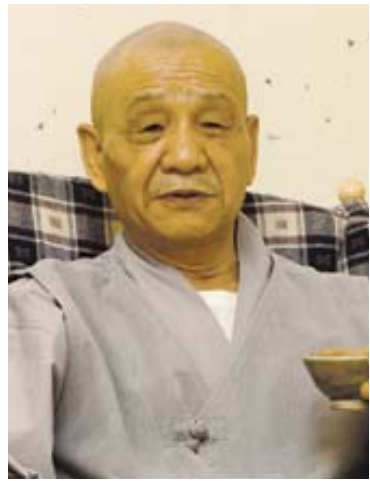
# 오현 스님 '아득한 성자'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현)와 문화나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지수)가 선정한 3/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올해 정지용문학상수상작가인 시조시인 오현(사진·백담사회주)스님의 <아득한 성자(시화)> 등 52종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집에는 철원출신 원로 시인 민영씨의 <방울새에게(실천문학사)>도 선정됐고 소설집에는 흥천출신 박양호 교수(전남대)의 <마음의 오출타기(문화나무)>가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문학작품집에는 강릉출신 권영성씨의 <등글이 누나(세계적)>와 춘천출신 송언씨의 <멋지다 씩은 띠(문학동네)>이, 평문집에는 강원대학교수인 문학평론가 신철하고수의 <미완의 시대와 문학>도 선정에 들었다.

선정된 우수문학도서는 권당 2,000부(평문은 1,000부)를 문화나눔사업으로 구입,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교정



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내진다. 책이 필요한 시설은 문화나눔사업추진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or-munhak.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주일 기자

## 가을밤 물결이신 전통악기의 향연

### ●영월 법흥사 등 산사음악회

고즈넉한 가을 산사에서 은은한 풍경 소리, 쏟아지는 별빛 그리고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사음악회가 마련된다.

강원 영월 법흥사(033-374-9177)는 10월 19일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법흥사가 올해 처음 마련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10월 18-21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음악회에는 인도, 중국, 일본의 전통 현악기 연주자들이 출연하고 달라이 라마의 평화메시지도 상영된다.

출연진들을 살펴보면 이르면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화려하다. 국악연주단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속령여대 가야금 연주단'을 비롯해 인도 퓨전 재즈 연주가 '바르가비 미스트리', 중국의 전통 현악기인 얼후 연주가 '케니헨'과 '민후이판', 한국에 잘 알려진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영계축'(사진) 등이 1부의 무대를 꾸민다.

이어 LMB싱어즈가 찬불가를, 탈북 여성 5인조 그룹인 '달래음악단'과 인



기가수 설운도씨와 장운정씨가 신나는 트로트를 선사한다.

강원 평창 오대산 월정사(033-332-6664)도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산사음악회를 연다. 월정사는 산사음악회 외에도 10월 5-7일 불교문화 축전을 열어 재즈음악회, 영산재, 불교사물시연, 산사영화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

충남 공주 영평사(041-857-1854)는 9월 29일-10월 21일 열리는 '구질 조 꽃 축제'의 하나로 29일 연경국악원 안치환씨 등이 출연하는 가운데 산사음악회를 연다. 축제 기간 중에는 사인 전시회, 꽃차 시음회, 천연비누 만들기 행사도 마련된다.

김주일 기자

# 석굴암 변천사 한눈에 본다



## 일제시대 해체·복원 과정 담은 유리원판 사진展

### 12월 19일까지 성균관대 박물관서

일제시대 석굴암과 불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균관대학교박물관(관장 송재소)이 12월 19일까지 기획한 특별전 '경주 신라 유적의 어제와 오늘-석굴암 불국사 남산'에 가면 그 의문점이 풀릴 것 같다. 이번 전시에서는 1900년대 초반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 200여점이 공개된다.

이 중에는 1913년 경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석굴암 1차 해체 복원과정 사진 12점과 1925년 다보탑 수리모습 사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석굴암 사진 12점은 당시 석굴암 해체의 복원과정을 '활동사진'처럼 연속적으로 보여줘 해체복원 과정은 물론 전후사정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는 이 중 5장만이 공개돼 정확한 과정

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석굴암 해체과정의 사진은 석굴암 돌을 덮었던 흙과 기와, 내부의 환기구 모습 등 석굴암의 초기 구조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진을 통해 석굴암 전실(前室)은 1964년 보수 수리 과정에서 일제가 깎아 놓은 굴절형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박물관측은 밝혔다. 하지만 깎아 놓은 것이 원형인지, 펼쳐 놓은 것이 원형인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제시대 석굴암 복원과정에서 보존불을 제외한 모든 조석이 교체된 사실도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면 알 수 있다.

1960년대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 석굴암의 모습을 한 눈에 조망하도록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석굴암 내부를 실물의 70% 크기 모형으로 제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외에 경주 남산의 모습을 담은 유리원판 사진 60점도 처음으로 복원, 공개된다.

송재소 박물관장은 "1912년 일제에 의해 석굴암이 해체복원과정에서 훼손되는 실상과 1925년 다보탑 수리과정에서 담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주 남산의 경우 문화재 발굴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 덕분에 7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유리원판은 경주에서 경주에서 동양현(東洋軒)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하던 '다나카'라는 민간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1925년 다보탑과 남산 사진 등은 당시 총독부 박물관장을 하던 후지타 료오사쿠(藤田亮策)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02)760-1216

김주일·여수령 기자

## 노래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10월3일 장흥 영산법회사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세계평화불사리탑앞에서 부처님일대기가 노래로 울려 퍼진다.

영산법회총(법주 행산)은 10월 3일 오전 11시 장흥 영산법회사에서 '세계평화불사리탑 건립회향법회 및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에 연주될 곡은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1992년에 작곡한 교성곡 '붓다의 노래'다. 법안정사 회주 호경 스님이 노랫말을 쓴 이 곡은 부처님 일대기를 10개의 주제로 나눠 정

리했다. 여기에 정부기 교수가 국악과 양악기가 어우러진 웅장한 스케일의 교성곡을 만들어 당시로서는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곡은 1992년 예술의 전당 초연에서 1992년 예술의 전당 초연에서 수 차례 연주되면서 국내 찬불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정부기 교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규모를 축소해 바라오페라단과 연합합창단이 노래를, 기본 악기 편성으로 구성된 신디사이저가 반주를 맡아 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㉓

### 화왕산 삼성암

장인성 시인

청매실 조롱조롱매단 불길은 묵이 선 소백산의 울음과 함께 도란도란 걸어가는 화왕산 그늘

솔잎이 모여서 바람공양 울리고 들꽃이 모여서 빛깔공양 울리고 새들이 모여서 소리공양 울리고

큰스님 한가ροι 담 밑에 앉아 새리꽃 피는 소리 엿듣고 있다.



삼성암(三聖巖)-청매 화왕산 삼성암 드는 마을에는 청매실이 배곡하고 산문에 들어서면 새리꽃구름을 피워 올려서 그 조화로움이 마치 선계와 옥계를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진다. 그림: 이상배 화백

##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0일(토요일)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정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암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속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 9월 1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0일 (음. 9월 10일)
- 3재 : 양력 11월 3일 (음. 9월 24일)
- 기도외향(막재) : 양력 12월 1일 (음. 10월 22일)
- 기도'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위패비, 아기옷 (무로)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유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속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예금주: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함장 02)3391-8523 / 011-9002-8523

www.sungjongsas.co.kr

##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범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광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정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직위치와 실제 당직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직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전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의 범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지관: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